

JoyVancouver

2021 광고 가이드



조이밴쿠버는?

조이밴쿠버 닷컴은 캐나다 전문 한글 온라인 뉴스 매체로 아가페미디어(Agape Media)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가페 미디어는 현재 권민수 대표의 일인 기업으로 캐나다에서 정식 사업 인가 과정을 거쳐 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운영 중입니다.

권민수 대표는 1997년부터 밴쿠버 한국일보 기자, 2001년부터 코리아미디어 취재 팀장, 2005년부터 밴쿠버 조선일보 기자, 2009년부터 편집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아가페 미디어를 운영 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유익하고 정확한 기사를 한인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광고 역시 이러한 기사를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이밴쿠버 광고가 적합한 이유.

캐나다 한인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매우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조이밴쿠버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보는 매체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아마존 알렉사 분석을 토대로 보면 접속자 수는 매일 타 매체와 1~3위를 다룹니다.

따라서 후발 주자로, 한국의 언론사의 프랜차이즈가 아니지만, 캐나다에 대한 중립적이고, 정확하며, 깊이있는 기사를 찾아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독자층은 30~50대 사이 장년층으로,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광고주 여러분의 성원으로 조이밴쿠버는 더 많은 독자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광고주와 더 깊이있고 오랜 친근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광고 효과는?

조이밴쿠버는 타사보다 적은 광고 공간으로, 독자의 눈길을 끄니다.

반응형 구조로, 광고는 PC나 맥 같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즉 타사에 2~3개 유닛 광고를 집행하는 효과를 단일의 저렴한 광고비로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광고의 기술적 특징

광고 숫자: 메인 화면에 총 7곳, 커뮤니티와 장터에 10곳 등, 조이 밴쿠버의 광고 공간은 희소성과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조이밴쿠버는 소수를 적극 홍보하는 프리미엄을 추구합니다.

광고 크기: 모두 구글이 정한 가장 효과적인 사이즈를 수용했습니다. 배너는 728 x 90 픽셀, 사이드바는 336 x 280 픽셀 기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광고 노출 빈도: 구글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2만 여 명이 총 4만2,261회 접속해 14만 8,572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했습니다.

즉 조이밴쿠버 광고는 한 달 동안 2만 여명에게 15만회 가까이 노출이 일어납니다. * 참고로 2020년 11월은 조이밴쿠버 접속자 피크 시즌이 아닙니다.

조이밴쿠버 접속자 비율을 보면 캐나다 80%, 한국 15%, 미국 3%, 기타 2%로, 캐나다 한인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 주효한 매체입니다.

메인 페이지

헤더 광고: 최상단에 위치하며 조이밴쿠버 접속 시 항상 노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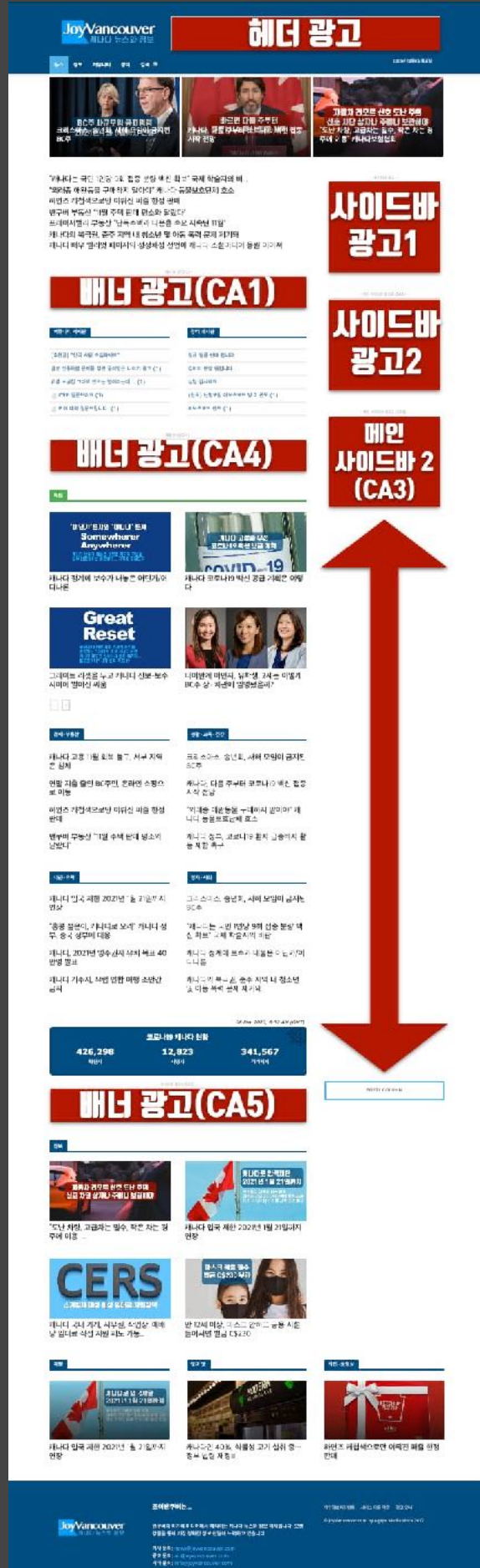
사이드바 광고1과 2: 우측에 위치하며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도 항상 노출됩니다.

메인사이드바 광고3: 메인 페이지에만 위치합니다

*사이드바 광고들은 스크롤 다운 시 따라서 움직입니다.

배너광고: 메인 화면에 위치해 대부분의 경우 노출됩니다. *배너 광고 중 CA5의 위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셔서 ctrl+f를 누른 후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광고 위치가 표시됩니다.



사이드바 광고1

사이드바 광고2

메인 사이드바 2 (CA3)



426,298 페이지뷰 12,823 방문 341,567 클릭

배너 광고(CA5)

2020년 11월 11일

CERS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기사 페이지

헤더, 사이드바 광고 1과2: 메인페이지에서 계속 유지되는 광고입니다.

기사 상단 광고: 기사 관련 사진과 본문 사이에 위치하는 광고입니다. 항상 눈길이 거치게 됩니다.

기사 중간 광고: 기사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입니다.

기사 하단 광고: 기사가 끝난 후, 소셜미디어 공유 버튼과 답글 기능 위에 위치합니다.

기사 페이지내 광고는 조이밴쿠버 주요 방문 목적인 기사 읽기가 발생하는 한 항상 독자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꼭 봐야할 기사

조이밴쿠버는 수 십년간의 노하우가 들어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 유치 목적으로 번역기를 돌린 기사나, 기자 자신이 전달 대상을 이해 못하고 쓴 기사는 없습니다. 정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합니다.

편안한 기사

조이밴쿠버의 기사는 사회 고발이나 비판의 선봉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밴쿠버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소식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선 비판 보다는 부드럽게,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하는 방향성을 갖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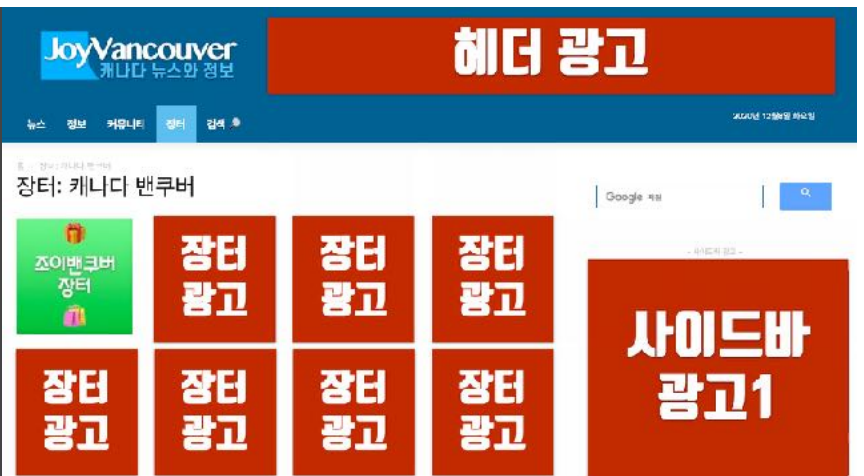
출처가 있는 기사

항상 기사의 출처를 밝혀 불필요한 저작권 시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보도자료와 취재 등으로 이뤄집니다. 보고서 인용의 경우 해당 보고서를 가능한 링크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터와 커뮤니티

장터와 커뮤니티에는 각각 카드형 광고 공간 7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광고비로 입체나 서비스를 알리고자 할 때 이용해주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인 시장에 타겟팅된 마케팅을 해보세요. 가성비로 시작해 조이밴쿠버 브랜드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권민수 대표

- 778-984-5567

- ad@JoyVancouver.com

- joyvancouver.com

파격적인 할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한인 경제 역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이밴쿠버도 기존의 가격정책을 대폭 수정해, 2021년에는 파격적인 할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사와 광고가 프라이스매치를 통해 좀 더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치/명칭	정가/월	할인가/월*	코드
헤더 광고	C\$799	C\$500	Header
사이드바 광고1,2	C\$599	C\$400	Sidebar, CA2
메인 사이드바2	C\$399	C\$200	CA3
배너 광고	C\$399	C\$150	CA1, CA4, CA5
기사 상·하단 광고	C\$300	C\$260	Ahead, Abottom
기사 중간 광고	C\$400	C\$300	Amiddle
커뮤니티/장터	C\$100	C\$50	unit

웹사이트가 없으세요?

웹디자인 서비스: 지난 3년간 조이밴쿠버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디자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킹 페이지 제공: 광고주 중 웹사이트가 없는 분께는 한 페이지 형태의 업체 소개 페이지를 무료 제공합니다.

마케팅 자료가 필요하세요?

마케팅의 기본: 다년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업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드립니다.

조이밴쿠버 광고는?

광고수 제한과 구조적 반복 노출, 멀티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반응형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합니다.

